

광주 5년간 물가 15.9% 상승...서민 생계부담 '가중'

호남통계청, 소비자물가 변화

상품·서비스 전반서 오름세 지속
생활물가·신선식품지수도 '우상향'
국제정세 불안 속 상승요인 여전

광주광역시의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가 1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 불안과 환율 등 여파 속에 장기간 이어진 상승세는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광주시 소비자물가 변화' 자료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는 2019년

0.2%, 2020년 0.4%, 2021년 2.6%, 2022년 5.1%, 2023년 3.7%, 2024년 2.5%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총 15.4%를 기록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생산량 감소, 유통 구조 변화 등 내부적 요인과 국제유가 상승, 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약제가 겹친 결과다.

국제유가는 2020년 2분기 이후 코로나 19로 침체했던 세계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와 러우 전쟁 영향 등으로 8분기 연속

증가했다. 2022년 2분기에는 2020년 2분기 대비 253.3% 급등했으며, 2023년에는 배럴당 82.1달러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소 꺾였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2024년 4분기 기준 저점이었다던 2021년 1분기 대비 25.5% 상승했다.

5년간 광주 지역 상품 물가는 총 19.1%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35.4% 올라 분기 평균 1.3%씩 상승했으며, 농축수산물 가격도 31.7%, 공업제품은 15.0%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역시 5년간 12.9%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20.0%, 집세는 3.0%,

공공서비스는 0.5%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품목별로는 국내단체 여행비가 41.9%로 가장 큰 폭의 상승곡선을 보였고, 영화관람료 32.1%, 휴양시설 이용료 31.0%, 국내 항공료 27.6%, 보험서비스료 25.6%, 생선회 외식비 21.8%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한 생활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8.2% 상승했으며, 분기 평균으로는 0.7%씩 올랐다. 특히 식품 물가는 28.0% 상승해 분기 평균 1.1% 상승했으며, 식품 외 품목은 13.0% 상승했다.

기상조건과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물품을 별도로 집계해 장바구니물가에 가까운 신선식품지수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신선식품 가격은 36.5% 상승했고, 이 가운데 신선채소는 55.9%, 신선과실은 36.2%, 신선어개는 18.0% 상승했다.

한국의 물가 전반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는 OECD 38개국 가운데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100)를 기준으로 한국의 식품 가격지수는 156, 의류는 161, 주거비는 123에 달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롯데와인위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와인 본매장 및 행사장에서 상반기 결산으로 세계 유명 와인을 특가에 추천하는 '롯데와인위크' 행사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즐기기 좋은 스파클링 및 화이트 와인을 특가로 제안하는 '여름 추천 와인', 행사 기간에만 특가로 만날 수 있는 '머스트해브 와인', 상반기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베스트셀러 와인', 어느 모임에서나 즐기기 좋은 '2만원대 가성비' 와인 등의 테마로 진행된다. 더불어 행사기간 중 20만원 이상 구매 시 5% 사은 혜택 및 와인 클럽 가입 고객 대상으로는 구매 금액대별 7%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경총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에 힘 보태야"

"회원기업 인근지역 우선 사용"

광주경총자치총합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전 국민 소비쿠폰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쿠폰 발행 시 하남·평동·침단 등의 회원기업 인근지역에서 우선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4개월의 기간 내에 지역화폐와 신용·체크·선불 카드 중 선택해 대중음식점, 편의점, 일반마트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총은 소비쿠폰 사용 범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021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품(26.3%) △대중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4%) 등 순이었다.

광주경총은 당시 집합 금지에 따라 내식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번 소비쿠폰은 대중음식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813개 회원기업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발행시 조속히 사용해야 한다"며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광주에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과 함께하는 다양한 할인 행사 등을 기획해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장사가 잘 돼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상의, 미래산업엑스포서 무료 수출 상담

25~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FTA통상진흥센터, 맞춤형 상담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중인 광주 FTA통상진흥센터는 25일부터 2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 현장에서 수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대규모 산업전시회로, 모빌리티, 금융, 로봇 등 지역의 미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상담부스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실제 현

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상담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광주FTA센터 소속 송홍철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 협정별 FTA 적용 기준, 해외 통관 애로사항 등 수출 실무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행사 기간 중 자유롭게 부스를 방문할 수 있으며, 기업 실무자뿐 아니라 무역이나 해외시장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학생들도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담 부스는 전시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통상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창구가 될 것"이라며 "FTA 활용이 낮은 기업도 현장 방문만으로 전문가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컨설팅, 통·번역,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이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광주FTA통상진흥센터(062-350-5888)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미식 트렌드' 새 레스토랑 오픈

명장미가·피에프창 동시 선보이 안유성 명장 '남도밥상' 첫 선

(주)광주신세계가 '흑백요리사' 출신 셰프의 요리와 아메리칸 차이나이즈 요리 등 트렌디한 메뉴로 구성된 새로운 식당가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6일 본관 지하 1층에 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레스토랑 2곳을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광주 최초로 선보이는 '명장미가'는 흑백요리사 출신 안유성 명장의 미식 브랜드로, 모내기 밥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정성 가득한 한 상 차림을 추구한다.

대한민국 16대 조리 명장인 안 명장은 지난 2002년 '가매'를 시작으로 광주옥 1947, 장수나주곰탕, 장수회관 등을 운영하며 남도의 풍성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왔다.

이번 '명장미가'는 그의 첫 백화점 매장으로, 명장의 조리법으로 만든 요리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표 메뉴는 보쌈, 강된장, 신선한 야채, 풍성한 밑반찬이 어우러진 '남도들녘 모내기 정식'(2만3000원)이다. 또한 간



안유성 명장의 미식 브랜드 '명장미가'의 대표 메뉴인 '남도들녘 모내기 정식'.



글로벌 미국식 중식당 '피에프창'의 대표 음식 사진. 광주신세계 제공

장계장과 양념계장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2인 메뉴인 '계장정식'(4만6000원)도 준비돼 있으며, 김과 젓갈 등남도 특유의 식재료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명장미가는 오픈 기념으로 오는 30일까지 5만원 이상 결제 시 '안유성 참치액/꽃계장' 중 하나를 선착순 증정하며, 매일 선착순 30명에게는 '안유성 자연육수'를 증정한다.

같은 날 오픈하는 '피에프창(P.F Chang's)' 또한 고객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미국식 중식당으로 유명한 피에프창은 폴 플레밍과 필립 치앙의 이름에서 따온 글로벌 브랜드로, 1993년 미국

아리조나 1호점 오픈 이후 현재 전 세계 25개국에서 약 37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대표 메뉴는 고기와 버섯 등을 볶아 바삭한 라이스 스틱과 함께 양상추에 싸먹는 '창스 치킨 레터스 랍'(2만3900원), 바삭한 소고기 슬라이스 요리 '몽골리안 비프'(3만1900원), '바비큐 메가 폭립(4개입, 3만4000원)', '완탕 수프'(1만7900원) 등이다. 피에프창은 QR코드 스캔 후 할인 쿠폰을 캡처하면 선착순 500명까지 대표 메뉴인 '창스 치킨 레터스 랍'을 50% 할인가에 선보이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준명 기자